



**탐라문화제 개막...활기 찾은 칠성로** '제58회 탐라문화제'가 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원에서 개막한 가운데 칠성통 아케이드 상가에 예술체험과 플리마켓이 열려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관련 기사 10면

## 전기차, 불어날수록 세수 감소 '딜레마'

국토연, 세금 감면 규모 추산 결과 제주 30년간 4600억 줄어 '전국 최고'

정부 차원 과세 확대 추진 시 보급 확대 걸림돌 우려...道 선제 대응 필요

행정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친환경 차량 대수가 증가할수록 세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향후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과세를 확대할 경우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이하 CFI 2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4일 CFI 2030의 수정보완 계획을 공개하면서 도내 등록차량 중 75%인 37만7000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키로 했다. 제주도와 정부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CFI 2030을 실현하기 위해 차량 구매 비용 일부와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국내 전기차 대수 6만9000대 중 24.0%인 1만650여 대를 도내에 보급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지속될수록 세수 감소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이에 대한 완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이 9일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48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전기차 보급 전망치가 가장 높은 제주에서만 약 4600억원의 지방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 규모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세입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주행거리세' 시행과 '친환경차 등록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자동차주행거리세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주행거리 1km 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km 당 10원을 부과할 경우 추산된 세금 감소액의 약 45%, 15원 부과 시 60%를 완화할 수 있으며, 25원을 부과하면 2017년 대비 10% 이상의 세수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친환경차 등록세는 친환경 차량 운전자의 경우 현재 연료세를 통한 도로 환경 개선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안됐다.

국토연구원의 제안처럼 정부가 친환경 차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혜택을 줄이거나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제주도의 경우 CFI 2030 추진에 치명적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혜택이 되레 규제로 전환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주도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 한풀 꺾인 도내 차량 증가세 첫 마이너스 감소...추이 촉각

9월 등록 차량대수 38만7470대

자가용 등 전달보다 981대 줄어

차고지증명제 후 증가폭 둔화 뚜렷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차량 등록대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대중교통 체제 개편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렌터카 총량제 등의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58만5258대로 이 가운데 기업민원차량(역외세원차량) 19만7788대를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38만747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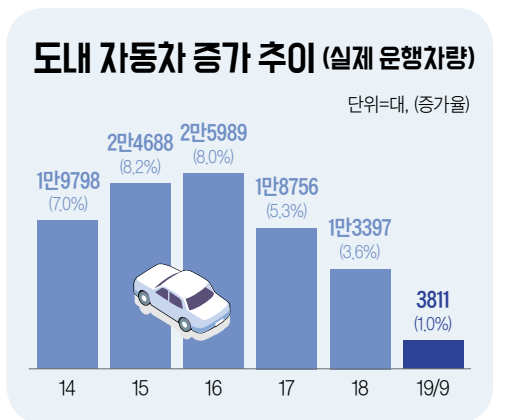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차량 대수는 지난 8월 실제 도내 운행 차량 38만8451대와 비교할 때 981대가 줄어든 것으로 처음으로 차량 증가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와 지난해부터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확대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인 관용·자가용이 407대 줄어들었다. 자가용의 경우 화물차가 468대, 승합차가 113대가 감소했으며 승용차는 176대가 늘어났다. 관용의 경우는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1대 줄어들었으며 화물차는 11대가 늘어났다.

제주도는 이와 같이 자가용 차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으로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미 차고지 증명제가 적용되고 있는 영업용의 경우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영업용은 총 574대가 감소했는데 승용차 619대, 승합차 82대가 줄어들었



다. 화물차는 27대가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른 렌터카 차량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따른 대·폐차 신고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도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 확인됐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만485대(3.9%) 증가한데 비해 2014년 1만9798대(7.0%), 2015년 2만4688대(8.2%), 2016년 2만5989대(8.0%)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다가 2017년부터 1만8756대(5.3%)로 상승세가 꺾였다.

이어 2018년 1만3397대(3.6%), 2019년 9월 말까지 3811대(1.0%)가 증가해 중형차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도 동지역으로 확대된 2017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했으며 지난달 마이너스 대로 돌아섰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동제주신협**  
최고한도 **2천만원**  
햇살론 **2천만원**  
중소기업 대출 **2.0%** 이하  
농어촌 전용자금 **0.9%**  
화북본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알두동로 205 | T. 722-7001  
이도지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서로 429 | T. 722-7002

**제11회 제주물 세계포럼**

The 11<sup>th</sup> Jeju Water World Forum

2019. 10. 10~11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화산섬의 지하수 보전과 활용**

2019. 10. 10 THU Day 1

**기획시**  
기조강연 [JPDC 취수원관리와 사회적 가치실현]  
주제발표 [수자원 가치 창출과 사회 공헌]

- 한국의 자연기원 좋은물 발굴 및 가치고도화 연구
- 하와이 주민들의 물보호 : 과거와 오늘
- JPDC - 유네스코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2019. 10. 11 FRI Day 2

**주제발표** [글로벌 수자원 보전 · 관리 동향]

- 에비앙의 취수원관리와 연구활동
- 하와이주의 수문지질과 지하수 고도화 연구동향
- 제주도 물수자분석 개선방안 제안
- 하와이주의 물공급 시스템

제주일보 창간 74주년을 축하합니다